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2019년 6월 17일(월)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성숙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88장	다	같	이
기 도	전병천	집사	
성 경 봉 독 예레미야 9:23~24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진정 자랑할 것』	이성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94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1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2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 보시니
-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3 물 불이 두렵잖고 창 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뵈기 원하네
- 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려 없도다 아멘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1 영 죽은 내 대신 돌아 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2 이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3 유혹과 핍박이 몰려 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 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9:23~24>

2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6월 18일(화) 기도 담당 : 안상은 집사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6월 17일(월)

존귀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살아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놀라운 사랑임을 깨닫고 이 하루도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우둔한 마음을 밝히시어 진정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힘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바로 아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생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므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아름다운 새예배당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바른 신앙과 삶으로 주님의 참제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새 예배당에 주의 영광이 가득차며 주를 위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나눔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망하는 사명자들로 가득차게 하옵소서. 세워 주신 담임목사님을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헌당에 이르기까지 저희의 모든 필요들을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성도들의 모든 소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각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새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자녀들이 바른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강건함 속에 이 땅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족속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온 지구촌이 다 함께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